



전남 장미 케냐서 키운다

〈아프리카〉

6개 품종, 기후·강수량 등 생육환경 최적

유럽 수출길 공략...네덜란드와 양해각서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지역에서는 최초로 아프리카 케냐에서 자체 품종을 재배하기로 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장미 생육환경이 뛰어난 케냐에서 6개 품종의 장미를 재배해 유럽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6일 "지난 4일 도 농업기술원은 네덜란드 육종회사 테라니그라와 탐핑크, 화이트쥬얼리, 하트온 등 6개 품종에 대해 화외 시험재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들 6개 품종이 케냐에서 생육하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로열티를 받고 현지에서 직접 수출할 방침이다.

테라니그라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오는 2016년까지 3년간 시험재배를 통해 장미의 품질 및 생산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경주 도 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도에서 육성한 장미를 세계 시장에 내놓게 된다"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지역에서 처음으로 로열티를 받고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재배 장소로 선정된 케냐 나이바샤 지역은 해발 1800~3500m의 고지대로, 기후가 서늘하고 강수량도 장미 생육환경에 적합한 지역이다. 세계에서 육성된 많은 신품종 장미가 이곳에서 시험재배되고 있다는 것이 도 농업기술원의 설명이다.

또 케냐의 장미 재배 면적은 약 2500ha에 달해 우리나라 재배면적(370ha)의 약 9배에 해당하며, 재배된 장미는 대부분 네덜란드 등 유럽지역에 수출된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월 완공한 화훼종묘보급센터를 통해 국내에서 육성한 장미를 조기에 확대 보급해 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이는 한편 농가와 소비자가 원하는 장미 신품종을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남광건설, 법정관리 신청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광건설이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광주지방법원은 남광건설이 지난 4일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관련기사 8면〉

남광건설은 지난해 7월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 평가액 발표에서 1130억원으로 광주·전남 21위, 전국 166위에 오른 중견업체다. 1970년 설립해 광주 동구에 본사를 두고 토목, 건축, 환경·플랜트, 조정 사업 등을 하

고 있다.

서구청 신청사와 세계 김치연구소, 음식물 자원화 시설, 광주 새 야구장 등 관급공사에 주로 참여해 왔다.

하지만 최근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파산부는 조만간 대표이사를 심문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 남구·광산구, 전세가율 전국 최고

79.6% 전국 평균 10%↑ ... 광주, 광역시중 최고

수완지구 등 신도시에 수요 몰려 상승세 주도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12년 여만에 68%를 돌파한 가운데 광주 남구와 광산구의 전세가율이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전세가율 역시 6대 광역시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6일 KB국민은행이 조사한 3월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 자료에 따르면, 광주 남구

와 광산구의 전세가율은 79.6%로 전국 평균보다 10% 가량을 상회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광산구의 한 아파트값이 1억원이라면 전세가는 7960만원이란 말이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줄었다는 의미로, 최근 전세가격은 계속 오르는 데 매매가격은 전세가보다 상승폭이 작

거나 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광주 역시 6대 광역시 가운데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의 전세가율은 77.8%로, 대구(74.1%)보다 3.7%포인트나 높았으며 울산(72.3%), 대전(71.2%), 부산(68.5%), 인천(62.3%)이 뒤를 이었다.

한국감정원의 3월 통계에 따르면 광주의 전세가율은 더 높다. 광산구는 1년 전인 2013년 4월부터 1%포인트 상승한 81.5%로 전국 263개 시·군·구 가운데 유일하게 80%대를 넘겼다. 남구도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오른 76.6%에 달했다. 광주 전체 전세가율은 78.2%를 기록했다.

광산구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수완지구의 경우처럼 교통과 편의 시설, 학교 등 주변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진 계획지구가 많은데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도 다수여서 전세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 전세 물량 공급현상으로, 전세가격도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아파트값이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편이어서 전세가격이 집값에 버금갈 정도로 오르는 데다, 2015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및 최근 대규모 신규 입주에 따라 집값 하락을 염두에 두고 매매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나온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 빛가람에서 ICT 진흥의 새 시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개원식이 4일 오후 나주시 산포면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열린 가운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박준영 도지사, 오형국 광주시 행정부시장, 장병완 국회의원, 문인 국토부 공공기관 이전지원단 국장 등 참석자들이 개원을 알리는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전남도청 제공〉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빛가람 시대' "신문은 국민 알권리 위해 존재"

콘텐츠 진흥원 등 상반기 개원 잇따라

한국신문협, 신문의 날 표어 공모 입상자 등 시상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지난 4일 오후 나주시 산포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신청사에서 개원식을 갖고 '빛가람 시대'를 열었다.

개원식에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형국 광주시 행정부시장, 장병완 새정치연합 의원, 임성훈 나주시장, 문인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이전지원단 국장 등 정관계 인사와 나주시민, KCA 임직원 등 모두 5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원식은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이전 유공자에 대한 미래부장관 표창 등의 순으로 열렸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 401억원이 투입됐으며, 직원 240명이 근무하게 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이어 이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회관

오는 5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등이 올 상반기 내 잇따라 개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따르면 혁신도시 9개 공공 733만4000㎡의 부지 조성은 이미 완료됐으며, 호수공원 조경공사, 가로등 시설 등은 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 1990년 8월 전과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특수법인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으로 설립된 뒤 지난 2011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주요 업무는 방송통신전파 정책연구, 전파 산업진흥, 방송통신 산업진흥, 기금 운용 및 R&D기획, 전파이용 환경 개선 등이 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kwangju.co.kr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송희영)·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가 공동 주최하는 제58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가 지난 4일 오후 4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기념대회는 송필호 회장의 대회사와 송희영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종률 회장이 3개 단계가 공동으로 채택한 '우리의 다짐'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한국신문협회 부회장인 김여송 광주일보 대표이사가 신문의 날 표어 공모전 입상자와 신문협회상 수상자에 대해 시상했다.

송필호 회장은 대회사에서 "신문의 기본적 기능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동체에 공적 담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신문의 진정한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종률 기협 회장은 우리의 다짐을 통해 "시대가 바뀌어도 '신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며 "신문의 존재 이유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독자들을 위한' 신문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의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361-3515 양 동 지 점:362-6164
전화 각화지점:268-6163 풍암금호지점: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바꿉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협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